

# 국회 본회의, '전세사기 특별법'·'김남국 방지법' 처리

### 전세사기 최우선 변제금 무이자 대출·정부 채권 매입은 빠져 4급 이상 고위 공직자·국회의원 가상자산도 재산신고 의무화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과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의 가상자산(코인) 재산 신고를 의무화하는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세사기 관련 특별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지 28일 만이자,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한 지 24일 만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마련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재석 의원 272명 중 찬성 243명, 반대 5명, 기권 24명으로 통과시켰다.

법안 핵심은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정부가 경·공매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당초 정부 안보다 적용 대상이 확대됐다.

여야 간 막판까지 쟁점이었던 피해 보증금 보전과 관련,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최우선 변제금만큼 최장 10년간 무이자 대출해주는 내용이 담겼다. 근저당 설정 시점이나 전세 계약 횟수와 관계 없이 경·공매가 이뤄지는 시점의 최우선변제금 대출이 가능하다.

최우선변제금 범위를 초과하면 2억4000만원까지 1.2~2.1%의 저리로 대출을 지원한다. 최우선 변제금이란 세입자가 살던 집이 경·공매로 넘어갔을 때 은행 등 선순위 권리자보다 앞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은 최초 임대차 계약 시점을 기준으로 최우선변제금의 소급 적용을 요구했지만, 정부 반대로 제외됐다. 야당이 요구해온 '보증금 채권 매입'도 정부 반대로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대신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경·공매를 대행해주는 '경·공매 원스톱 대행 서비스'를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가 경·공매 비용의 70%를 부담한다.

경·공매가 개시된 경우 외에도 임대인의 파산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도 지원 대상에 넣었다.

피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전세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을 위한 신용 회복 프로그램도 가동된다.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되면 최장 20년간 전세 대출금 무이자 분할 상환이 가능하다. 상환의무 준수율 전제 20년간 연체 정보 등록·연체금 부과도 면제된다.

또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국회의원을 포함한 4급 이상 고위 공직자의 재산 신고·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국회의원이 국회에 신고하는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가상자산도 포함하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을 각각 통과시켰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68명에 찬성 268명, 국회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69명에 찬성 269명으로 모두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거액 코인 거래·보유 논란이 '입법 로비' 의혹과 국회의원 도덕성 논란으로 번지면서 급물살을 탄 법안들이다.

우선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국회의원이나 고위 공직자가 금액과 관계 없이 모든 가상자산을 재산 등록하도록 했다. 재산 등록해야 하는 가상자산 가액의 하한액이 없는 것으로, 1원이라도 가지고 있다면 신고해야 한다는 의미다.

기존 공직자윤리법에는 현금·주식·채권·금·보석류·골동품·회원권 등을 재산 신고 대상으로 규정했으며, 가상자산은 제외돼 있었다. 가액 산정은 가격 변동이 심한 가상자산 특성을 고려해 별도 대통령령으로 정할 예정이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는 가상자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본인이나 이에 관계자의 가상자산 보유를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다.

법안은 올해 12월 초 시행될 예정이다.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이후 행해진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신고해야 한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의 재산 신고·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 지방시대위원회 7월 공식 출범...기회발전특구 신설

### '통합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한 대통령 소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오는 7월 출범한다. 지방 이전 기업에 혜택을 주는 내용의 기회발전특구 운영 근거도 신설됐다.

정부는 25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 (이하 통합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이하 지방분권법)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이하 균형발전법)을 통합한 것으로, 지난해 11월 법안 제출 후 약 7개월 만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정부는 이번 제정안 통과로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관련 계획과 공약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체계가

마련돼, 지역이 원하는 정책과 사업을 더욱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통합법률안에 따르면 정부와 지자체는 시도별 지방시대 계획을 기초로 중앙부처가 수립한 부문별 계획을 반영해 5년 단위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1년 단위의 시행계획 이행상황을 평가한다.

지역의 자생력을 확보하기 위해 운영 중인 정부의 국정과제에 새로 추가된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운영 근거도 신설됐다. 지방의 기회발전특구에 이전하는 기업은 감세 등 파격적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애초 정부 원안에 포함됐던 교육자유특구 신설 관련 조항은 제외됐다. 교육자유특구는 지역별 맞춤형 공교육을 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주는 것이 골자인데, 야당을 중심으로 지역별 서열화, 입시경쟁 유발의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는 추후 별도 입법을 통해 교육자유특구 조항을 통합법률안에 담기로 했다.

아울러 지방시대 국정과제를 총괄하기 위한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 지방시대위원회가 오는 7월 출범한다.

위원회 심의·의결사항의 이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무회의뿐 아니라 '제2의 국무회의'라고 불리는 중앙지방협력회의에도 이행상황 점검 결과를 보고할 수 있다.

통합법률안 시행일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이다.

정부는 통합법률안에서 위임한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 기회발전특구 지정 지방시대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시행령을 1개월 이내에 제정할 방침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尹 지지율 변동없이 36%...부정평가 소폭 상승

NBS...총선 지지·견제 46% 동률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회복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5일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2~2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36%, 부정 평가는 56%였다. 직전 조사인 2주 전과 비교해보면 긍정 평가는 변동이 없었고, 부정 평가는 1%포인트(p) 올랐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34%로 2%p 올랐고, 더불어민주당은 2%p 하락한 27%였다. 내년 4월 22대 총선에 대한 인식으로는 '정부·여당 지원'과

'정부·여당 견제'가 각각 46%로 동률이었다.

가상자산 투자 논란에 휩싸인 김남국 의원에 대해선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는 응답이 60%로, '의원직 사퇴는 선택사항'은 의견(31%)보다 월등히 많았다. 민주당 지지층(42%) 및 진보층(48%)에서도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정부의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단 파견에 대해선 '도움이 될 것' (40%)보다 '도움이 되지 않을 것' (53%)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p다. 응답률은 18.5%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연합뉴스

## 김남국 코인 논란 '위메이드' 국회 14번 방문

### 입법 로비 의혹 일자 기록 공개

김남국 의원의 코인 거래로 논란을 빚은 가상자산(코인) '위믹스' 발행사가 지난 2020년 이후 국회를 14차례 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국회사무처가 국회 운영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위믹스 발행사인 위메이드와 위메

이드엔터테인먼트는 21대 국회(2020년~현재) 들어 국회를 총 14차례 방문했다.

위메이드는 국민의힘 운영형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한규·김종민·오기형 의원 등 가상자산 소관 상임 위원회인 정무위 소속 의원실을 주로 방문했다.

앞서 국회 운영위원회는 전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여야 원내지도부 합의에 따라 위메이드의 국회

출입 기록을 공개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김남국 의원의 코인 거래·보유 논란이 'P2E(Play to Earn·돈 버는 게임)' 업체의 국회 입법 로비 의혹으로 번지면서 해당 업체 임직원들의 국회 출입 기록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날 공개된 자료는) 단순 출입 기록이기 때문에 의원실에 가서 의원을 만났는지, 비서관을 만났는지, 아니면 그냥 그 명만 빌린 건지는 알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오광록 기자 kroh@

## 건물·주택 리모델링, 신축, 지붕공사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건물 리모델링



칼라강판 지붕공사



주택 (외, 내부) 리모델링



전원주택신축



공장신축



징크판설시공



창호(삿시)교체



농막



옥상스틸방수

**MD 모던건설** 시공문의 전상하 T. 062)531-3530, H. 010-9229-3530

사무실 광주시 북구 자미로45(신안동) | 공장 광주시 서구 서향2길3(서향동)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201210-중-116877호

단, 환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든든한 '척추' 튼튼한 '관절'

한번쯤 생각하게 보세요!

- ☑ 허리, 엉덩이, 다리까지 아프고 저리며 통증이 있다면... **허리디스크?**
- ☑ 목을 돌려서 어깨가 아프다... **목디스크?**
- ☑ 계단 오르내리기가 힘들고, 무릎이 자주 붓는다면... **퇴행성 관절염?**
- ☑ 팔을 머리 위로 들어올리기 어려워진다... **회전근개파열?**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 062) 970-6000

전화로 MRI를 미리 예약을 하시면 1~2시간 이내에 진단 및 치료가 가능!